

국내 특화도서관의 유형화와 지역활성화 운영모델 연구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and Operational Models for Local Revitalization in Korea

노 영 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화도서관의 유형과 운영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주제기반,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자원기반, 복합특화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화도서관은 단순히 특정 주제의 장서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 문화, 생활문제, 산업, 공동체 관계를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여는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의 여섯 가지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부가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공공인프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vitalization and proposes their typology and operational models. The cas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theme-based, user group-based, function-based, local resource-based, and hybrid special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function not merely as libraries with distinctive collections or programs, but as public platforms that connect local memory, culture, everyday issues, local industries, and community network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ix operational models: the local resource archive model, the cultural creation and experience model, the everyday problem-solving model, the local industry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model, the social inclusion and life-cycle support model, and the local collaboration platform model. The study redefines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as strategic public infrastructure for local revitalization.

키워드: 특화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역활성화, 운영모델, 지역자원, 지역문화, 사회적 포용, 지역협력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ies, Local revitalization, Operational model, Local resources, Local culture, Social inclusion, Local collaboration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5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5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55-87,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055>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권, 독서문화 향유 기회, 평생학습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도서관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료 제공과 열람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생활문제 해결, 사회적 포용, 공동체 회복, 지역활성화의 거점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민주적 참여와 지식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강조한다 (IFLA & UNESCO, 2022).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관계망과 공공성을 형성하는 장소로 이해하는 최근 연구 흐름과도 연결된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사회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장소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Audunson et al.(2019)는 공공도서관을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설명하였다. 또한 Klinenberg(2018)는 도서관을 사회적 인프라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회복력과 시민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용자 수 증가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 관계, 참여, 신뢰를 형성하는 공공적 작용구조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특성화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자료와

서비스의 차별화 및 집중화를 통한 운영관리 전략으로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노영희 외(2017) 역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특성화가 도서관의 정체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특화도서관이 단순한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 기여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보편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장서, 공간, 프로그램, 인력,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운영모델이다. 특히 특화도서관은 지역자원과 주민수요를 도서관 운영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시재생 맥락에서 도서관이 기초생활인프라를 넘어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 증진, 생활밀착형 문화·교육·복지 기능,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화도서관이 지역자료, 지역문화, 지역산업, 지역공동체와 결합될 때 지역활성화의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화도서관 연구는 여전히 개별 사례 소개, 특화장서, 특화서비스 분석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특화도서관이 지

역활성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특화도서관의 유형이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운영구조로 작용하고 어떤 공공적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심효정과 노영희(2022)는 특화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특화자료 비중, 전담사서 배치, 특화공간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등이 이용자 인지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특화도서관의 성과가 '특화주제의 선언'이 아니라 장서, 공간, 인력, 프로그램, 협력체계의 실질적 정렬을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대상으로 특화도서관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이 지역활성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을 장서나 프로그램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자원, 주민수요, 공간경험, 전문인력, 협력 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가 결합된 지역기반 운영모델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주제기반,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자원기반, 복합특화형으로 유형화하고, 나아가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 등 지역활성화 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과 운영특성을 체계화하는 데 있다. 둘째, 특화도서관이 지역 정체성 강화,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지원,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특화도서관의 운영요소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특화정책과 현장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부가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이자 지역활성화의 실천적 인프라로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과 지역활성화의 관계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권과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 문화시설이자,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 관계, 참여, 기억을 매개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IFLA와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의 살아 있는 힘으로 규정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민주적 참여와 평생학습, 문화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시설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은 특히 '장소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광장,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활동의 장소 등 여러 형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사회경제적 차이를 완화하고 시민적 참여 가능성을 확장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Audunson et al.(2019)는 공공도서관을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해석하면서, 도서관이 시민 간 접촉, 민주적 소통,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의 지역활성화는 지역사회 내 관계의 밀도와 공공적 상호작용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Klinenberg(2018)는 공공도서관을 대표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제시하면서, 물리적 공간과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적 접촉, 사회적 회복력, 공동체 결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즉, 도서관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머물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생활 기반 공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장소애착을 높이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시설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은 지역문화, 향토자료, 도시재생,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기억의 저장소이자 지역문화콘텐츠의 생산·활용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이 기초생활인프라로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문화·교육·복지 기능과

지역 커뮤니티 허브 기능을 통해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을 보다 전략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보편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에 선택과 집중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문화·학습·참여 기능을 고도화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지역활성화의 관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과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식 인프라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주민들이 만나는 사회적 장소이자 공론장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생태, 생활문제를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플랫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기능을 지역사회 맥락에 맞게 심화·집중시키는 전략적 운영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특화도서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공공도서관 특성화 연구, 특화도서관 운영체계 연구, 지역문화 및 도시재생 관련 도서관 연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특성화 연구는 특화도서관 논의의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조찬식(2008)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자료와 서비스의 차별화 및 집중화를 통한 운영관리 전략으로 설명

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관습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특성화를 단순한 장서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경영 전반의 전략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이후 특화도서관 연구의 기초가 된다.

노영희 외(2017)는 국내외 특성화 도서관 사례와 정책 흐름을 분석하고, 특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특성화 도서관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서 특성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특성화 분야, 전문인력, 이용자 요구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향후 특성화 도서관에 배치될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량, 특성화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분석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Noh(2019)는 도서관 특화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예비 사서, 현장 사서, 도서관장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 특화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주제전문사서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현직 사서 재교육, 자격제도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화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특화장서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특화도서관 운영모델의 핵심 요소로 인력·전문성 및 주제전문서비스 역량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화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노영희 외(2018)의 연구가 중요하다. 이들은 국내

외 43개 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특화도서관의 설립과정, 지역적 특성, 특화장서, 예산, 인력, 네트워크,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비단계, 조성단계, 운영단계, 확산단계로 제안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이 단순히 특정 주제를 표방하는 수준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밀착형 주제 선정, 특화환경 조성, 정보복합문화서비스 기획, 외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Ro et al.(2025)은 평창군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특화전략을 대상으로 현황분석, 이용자·비이용자 수요조사, 사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재특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특화도서관의 성과가 주제 적합성, 공간·장서·프로그램의 통합 설계, 전문인력, 외부 네트워크, 재정 지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특히 수요 기반 계획과 도서관 간 네트워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특화도서관을 지역활성화 운영모델로 재구성하고, 지역자원·이용자 수요·전문인력·거버넌스·재정구조의 결합을 핵심 분석축으로 설정하는 데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효정과 노영희(2022)는 공공도서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특화도서관 운영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화도서관에서 향토·지역 관련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수 도서관에서 특화자료 비중이 낮고 전달 사서 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화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화주제가 지역특성

에 부합하고, 별도 공간과 전담사서, 일정 수준 이상의 특화장서와 프로그램이 확보될 경우 이용자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의 성과가 주제 선정만으로 달성되지 않고, 장서·공간·인력·프로그램·운영체계의 통합적 정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문화 및 지역활성화 관점의 도서관 연구도 본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집, 보존, 분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자료와 향토문화콘텐츠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체성 형성, 지역문화 교육, 지역콘텐츠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관점은 향토자료 특화도서관, 지역아카이브형 특화도서관,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도서관 모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도서관이 기초생활인프라를 넘어 지역재생의 참여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도서관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문화, 교육, 복지, 커뮤니티 형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특화도서관을 지역활성화 운영모델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즉, 특화도서관은 지역재생이나 지역활성화 정책의 외부 지원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요구를 연결하고 새로운 활동을 생성하는 내부적 작용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국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장소성과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을 다양한 사회적 만남이 발생하는 복합적 장소로 분석하였고, Audunson et al.(2019)은 공공도서관을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위한 인프라로 해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서비스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시민성, 상호이해, 공공적 소통을 형성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국내 특화도서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사회 작용구조' 분석을 보완하는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oh et al.(2023)은 공공도서관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지역성, 공동체성, 상호작용성, 유기적 활력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에서 특화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 지역협력 플랫폼형 운영모델로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특성화의 필요성,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특화도서관 운영현황, 지역문화콘텐츠와 도시재생에서의 도서관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대체로 개별 사례 분석, 특화장서 또는 특화서비스 중심 분석, 운영현황 진단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운영모델로 재구성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지역활성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나아가 특화도서관을 지역활성화 운영모델로 재구성함으로써, 특화도서관 연구를 사례 소개의 수준에서 전략적 운영모델 도출의 수준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3. 연구설계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조사한 국내 특화도서관 95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국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특정 주제, 대상, 기능 또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협력체계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선별한 목적표집 기반 사례분석이다. 사례 수집은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도서관 운영자료, 보도자료, 관련 문헌, 특화도서관 사례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례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사례 선정 과정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둘째, 특화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셋째, 해당 특화주제가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또는 협력체계 중 하나 이상의 운영요소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넷째, 지역자원 또는 이용자 수요와의 연계성이 확인되는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반면 단순히 일회성 행사만 운영한 사례, 특화 명칭은 있으나 관련 운영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공공도서관이 아닌

전문기관 중심 사례, 운영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을 단순히 특화장서나 일부 프로그램을 보유한 도서관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 전반에서 일정한 차별화 전략이 구현되고 있는 사례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95개 사례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사례의 특화주제, 주요 이용대상, 장서·콘텐츠 구성, 프로그램·서비스 운영, 공간구성, 인력 및 전문성,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공공적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특화도서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유형이 지역 정체성 강화,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지원,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사례분석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특화도서관이 단일한 제도나 표준화된 서비스로 설명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원, 이용자 수요, 정책환경, 운영역량, 공간조건, 협력체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맥락 의존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Yin(2018)은 사례연구가 실제 생활세계의 맥락 속에서 복합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연구전략이라고 보았으며, Stake(1995) 역시 사례연구가 특정 사례의 고유성과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화도서관 연구는 개별 도서관의 단순 현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례 간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운영모델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사례는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실질 성과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특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 특화주제가 장서, 프로그램, 공간, 서비스, 협력체계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해당 특화주제가 지역자원이나 이용자 수요와 연계되어 있는지, 지역사회에 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공공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첫째, 특화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도서관, 둘째, 해당 특화주제를 장서·프로그램·공간·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있는 도서관, 셋째, 지역자원 또는 이용자 수요와의 연계성이 확인되는 도서관, 넷째,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공적·문화적·교육적 기여 가능성을 지닌 도서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특화도서관을 “특정 주제를 가진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화된 공공가치를 생산하는 운영체제로 분석하기 위한 전제이다.

3.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특화도서관의 운영요소와 지역활성화 기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자료와 서비스의 차별화 및 집중화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조찬식, 2008). 또한 특화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콘텐츠와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한 특화주제 선정, 특화장

서, 예산, 인력, 네트워크,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홍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노영희 외, 2018). 특화도서관 운영현황 연구에서도 특화자료의 비중, 전담사서 배치, 특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성 부합성 등이 이용자 인지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심효정, 노영희,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특화주제의 명확성이다. 이는 해당 도서관이 어떤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둘째, 지역수요 및 지역자원과의 적합성이다.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생태, 인구구조, 생활문제와 연결될 때 지역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화주제와 지역 맥락 간의 접합성이 중요하다. 셋째, 장서·콘텐츠의 전문성이다. 특화도서관의 기반은 관련 자료와 정보자원의 체계적 축적에 있으므로, 특화장서, 지역자료,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 자료의 존재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서비스의 지속성이다. 일회성 행사 중심의 특화가 아니라, 상시적·반복적·단계적 서비스로 운영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공간·경험의 차별성이다. 특화주제가 별도 공간, 전시·체험공간, 교육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인력·전문성의 확보 수준이다. 전담사서, 주제전문 역량, 외부전문가 활용, 담당 인력의 지속성이 특화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았다. 일곱째, 협력·거버넌스 구조이다. 학교, 행정기관, 문화기관, 복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조직과의 협력 여부를 통해 특화도서관의 지역연계성을 파악

하였다. 여덟째, 성과관리와 지속가능성이다. 특화운영이 단기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지표, 환류체계, 예산·재원 구조, 운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분석, 내용분석, 비교사례분석을 결합하였다. 우선 문헌분석은 특화도서관 관련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자료를 검토하여 개념, 유형, 분석기준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Bowen(2009)은 문서분석이 질적 연구에서 제도, 프로그램, 정책, 조직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분석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례 설명자료, 선행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특화도서관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사례의 특성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특화주제, 주요 이용대상, 운영요소, 지역연계 요소를 코딩하였다. Krippendorff(2018)는 내용분석을 텍스트와 상징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추론을 도출하는 연구기법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특화주제,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협력체계, 지역사회 기여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범주별로 재배열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사례 간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각 사례를 주제기반,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자원기반, 복합특화형으로 1차 유형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장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협력체계, 지역활성화 기능의 결합방식을 비교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러한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의 운영모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은 개별 사례의 단순 소개가 아니라, 사례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이론적 모델로 재구성하는 절차이다. Nowell et al.(2017)이 강조한 것처럼 질적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절차의 투명성, 범주화 과정의 일관성, 해석의 근거 제시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준과 유형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연구의 해석 가능성과 재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1〉은 사례 분류를 위한 분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즉, 〈표 1〉은 개별 사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표이며, 이후 〈표 2〉의 유형별 사례 분포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먼저, 각 사례의 주된 특화축을 기준으로 1차 유형을 부여하였다. 특화의 중심이 특정 지식·문화·생활 주제에 있을 경우 주제기반형, 특정 이용자 집단에 있을 경우 대상기반형, 디지털정보·아카이브·창작·창업지원 등 기능 수행에 있을 경우 기능기반형,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생태·생활자원에 있을 경우 지역자원기반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실제 특화도서관 사례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개 이상의 특화축이 장서·프로그램·공간·협력체계에서 동시에 구조화되어 있고, 운영목표 역시 복수의 지역사회 기능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복합특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복합특화형은 단순히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제×대상, 주제×기능, 지역자원×문화창작, 지역산업×창업지원 등 복수의 특화요소가 운영체계 안에서 결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특화도서관 사례 유형화 기준

유형	유형화 기준	주요 분석 초점	해당 사례 판단 기준
주제기반 특화도서관	- 특정 지식·문화·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도서관	- 주제 장서, 주제 프로그램, 주제 공간, 주제 기반 문화활동	- 문화예술, 음악, 생태·환경, 식문화, 과학, 해양, 문학 등 특정 주제가 도서관 운영의 중심축으로 설정된 경우
대상기반 특화도서관	-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요구와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특화된 도서관	- 이용자 집단,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정보격차 해소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주민,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장서·공간·프로그램이 구성된 경우
기능기반 특화도서관	- 도서관이 수행하는 특정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된 도서관	- 디지털정보, 아카이브, 창작·제작, 연구지원, 리더십, 창업지원	- 특정 주제보다 정보활용, 디지털 역량, 창작, 기록, 상담, 교육, 창업지원 등 기능 수행이 핵심인 경우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산업·생태·생활자원을 중심으로 특화된 도서관	- 지역자료, 향토문화, 지역아카이브, 지역학, 지역브랜딩	- 지역의 역사, 인물, 산업, 생태, 생활문화, 공동체 기억 등이 장서·콘텐츠·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경우
복합특화형 도서관	-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도서관	- 융합적 운영구조, 다층적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지역사회 확장성	-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주제×대상, 주제×기능, 지역자원×문화창작 등 복수의 특화요소가 결합된 경우

3.3 연구질문

본 연구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운영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 RQ1.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는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 연구질문은 특화도서관의 유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특화도서관 논의에서는 특화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이를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 복합특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도서관의 유형을 재구성하고, 각 유형이 지니는 운영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 RQ2. 특화도서관의 운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 연구질문은 특화도서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화도서관의 성과는 특화주제의 독창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경험, 인력·전문성, 협력·거버넌스, 성과관리 요소가 상호 정렬될 때 특화도서관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에서 이러한 운영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RQ3. 특화도서관은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 연구질문은 특화도서관의 공공적 효과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생활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활동과 창업·산업 정보 제공, 사회적

포용, 주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을 지역 정체성 강화,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지원, 관계망 형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 RQ4.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화도서관의 차별화된 운영모델은 무엇인가?

이 연구질문은 본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목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의 개별 운영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요소가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결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의 지역활성화 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질문은 특화도서관을 개별 도서관의 특수한 운영사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의 유형, 운영요소, 지역활성화 기능, 운영모델을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특화정책과 현장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의 유형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는 단순히 특화주제의 명칭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특화가 도서관 운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기준으

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는 자료와 서비스의 차별화 및 집중화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해되며(조찬식, 2008), 특화도서관 운영은 지역콘텐츠, 지역민 요구, 특화장서, 인력, 네트워크, 시설,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으로 결합될 때 실질성을 갖는다(노영희 외,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주제기반 특화도서관, 대상기반 특화도서관, 기능기반 특화도서관,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 복합특화형 도서관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을 개별 프로그램이나 장서의 차별화가 아니라,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운영체제로 분석하기 위한 분류이다. 업로드 자료에서도 특화도서관의 유형은 주제 특화형, 대상 특화형, 기능 특화형, 지역기반 특화형, 복합 특화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사례 역시 전문, 디지털정보, 농업·상업·창업, 영유아, 청소년, 생태·환경, 향토자료, 문화예술, 다문화, 생활밀착형·지역, 실버, 식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표 1〉의 유형화 기준을 95개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표는 유형별 대표 사례와 지역활성화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4장의 사례분석 결과가 5장의 기여 구조 분석으로 연결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복합 특화형 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이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1 주제기반 특화도서관

주제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지식영역이나

〈표 2〉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의 유형별 분포

유형	주요 특화영역	대표 사례	지역활성화 기능
주제기반 특화도서관	- 문화예술, 음악, 생태·환경, 식문화, 해양, 문학, 과학 등	- 중화문학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무학숲도서관, 환경도서관, 가람도서관, 신월음악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가락물도서관, 꿈이랑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미감도서관, 인삼고을도서관 등	- 특정 주제를 매개로 지역의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고, 주민의 학습·체험·참여 기회를 확대함
대상기반 특화도서관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주민 등	- 공동어린이도서관, 삼천도서관, 아가랑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가산도서관, 갈매도서관, 송내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산본도서관, 덕계도서관, 성수도서관, 청천도서관 등	-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강화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에 기여함
기능기반 특화도서관	- 디지털정보, 정보리터러시, 창작·제작, 창업지원, 아카이브 기능 등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현도서관, 디지털정보도서관, 배다리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탕정온샘도서관, 고산도서관, 대화도서관, 성내도서관 등	- 디지털 역량, 정보활용, 창작활동, 창업지원 등 주민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함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	- 향토자료, 지역역사, 지역문화, 지역산업, 지역생활자원, 지역기억 등	- 마두도서관, 부산광역시시립중앙도서관, 성남시수정도서관, 영종도서관, 제천의병도서관, 포은중앙도서관, 문래도서관, 사북공공도서관, 장유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등	- 지역자료와 지역문화를 수집·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을 강화함
복합특화형 도서관	- 주제×대상, 주제×기능, 지역자원×문화창작, 지역산업×창업지원 등	-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선경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화서다산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청주금빛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탐라도서관 등	- 복수의 특화요소를 결합하여 지역문화, 교육, 정보, 공동체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장서, 프로그램, 공간, 정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성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음악, 생태·환경, 식문화, 과학, 해양, 인문, 역사, 지역학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 유형의 핵심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의 축적뿐 아니라, 해당 주제를 지역주민의 학습, 경험, 참여, 문화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즉, 주제기반 특화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많이 보유한 도서관'이 아니라, 특정 주제를 매개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식과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기반 특화도서관의 대표적 특징은 장서와 프로그램의 주제적 일관성이다. 예컨대 문

화예술 특화도서관은 예술 관련 자료 제공, 전시, 창작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향유와 창작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은 환경자료, 생태 교육,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환경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태감수성과 환경 시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은 음식, 조리, 로컬푸드, 농산물, 지역 식문화 자료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생활문화와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특화주제가 지역의 문화적·자연적·산업적 맥락과 접촉될 때 지역활성화 효과가 커진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공도서관 특성화가 장서

와 서비스의 차별화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자료집중을 넘어 지역의 요구와 연결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다. 노영희 외(2017)는 도서관 특성화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서 특성화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설정, 전문 인력, 이용자 요구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영희 외(2018)는 특화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역콘텐츠와 지역민 요구에 부합한 주제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화장서, 예산, 인력, 네트워크, 시설, 프로그램, 홍보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주제의 독창성보다, 해당 주제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구조로 전환되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4.2 대상기반 특화도서관

대상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요구, 발달단계, 생활문제,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주민, 장애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 유형의 핵심은 특정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참여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정교화하는데 있다.

영유아 특화도서관은 초기 독서경험, 부모·양육자 교육, 놀이 기반 학습, 가족 단위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청소년 특화도서관은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미디어 리터러시, 또래 커뮤니티,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성장 기반을 제공한다. 실버 특화도서관은 노년층의 독서, 디지털 활용, 건강정보, 여가문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문화 특화도서관은 언어, 생활정보, 문화교류, 상호이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기반 특화도서관에서 중요한 점은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공공성의 축소가 아니라 공공성의 심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대상의 요구에 맞춘 장서와 프로그램은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의 접근권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반 특화가 특정 이용자를 별도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낙인효과나 이용자 집단 간 경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기반 특화도서관은 해당 대상의 필요를 중심에 두되,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방적 서비스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심효정과 노영희(2022)는 특화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면서, 특화주제가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별도 공간, 전담사서, 일정 수준 이상의 특화장서와 프로그램이 확보될 때 이용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상기반 특화도서관 역시 대상 명칭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대상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서, 공간, 인력, 프로그램, 협력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3 기능기반 특화도서관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주제나 대상보

다 도서관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디지털정보, 아카이브, 정보리터러시, 연구지원, 창작·제작, 메이커 활동, 창업지원, 데이터 활용, 미디어 제작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 유형은 도서관을 자료 열람과 대출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학습·창작·문제해결·정보활용을 지원하는 실행형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의 대표적 사례군은 디지털정보 특화도서관이다. 디지털정보 특화도서관은 정보검색, 데이터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제작, 온라인 정보판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창작·제작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룸, 창작공방, 전시·발표공간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지식을 소비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도록 돕는다.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한 도서관은 지역자료, 구술자료, 사진, 문서, 생활사 자료를 수집·조직·서비스함으로써 지역기억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은 현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정적인 자료보존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활용 역량과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능동적 학습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Lankes(2011)는 새로운 도서관학의 핵심을 공동체의 지식창출 지원에서 찾았으며, 도서관은 이용자가 지식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공동체적 의미를 만들어가는 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자료영역보다 도서관의 수행역량 자체를 특화하는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은 지역활성화와 연결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디지털정보 특화는 지역주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연결될 수 있고, 창업지원 기능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카이브 기능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정체성 강화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을 도서관의 핵심 역량으로 내재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4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산업, 생태, 생활문화, 공동체 기억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도서관 운영의 중심에 놓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향토자료 특화도서관, 지역아카이브형 도서관,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도서관, 지역산업 연계 도서관 등을 포괄한다.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은 다른 유형과 달리 특화의 출발점이 외부 주제나 일반 이용대상이 아니라, 해당 지역 자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의 핵심 기능은 지역기억의 수집과 재구성이다. 지역의 역사자료, 사진, 지도, 구술기록, 마을자료, 지역인물 자료, 지역산업 자료, 축제 및 생활문화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전시, 교육,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은 지역자료의 보존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화의 해석자이자 지역콘텐츠의 생산자로 기능하게 된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집, 분류, 보존,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향토자료가 단순한 보존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체성 형성, 지역문화 교육, 지역 콘텐츠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시재생 맥락에서 도서관이 기초생활인프라를 넘어 문화·교육·복지 기능과 지역 커뮤니티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 연구는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이 지역활성화의 핵심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지역자원기반 특화도서관의 강점은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참여를 유도하기 쉽다. 또한 지역문화기관, 학교, 박물관, 기록관, 예술단체, 주민조직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 지역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자원기반 특화가 단순 향토자료실 운영이나 지역자료 수집에 머물 경우, 이용자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은 장서로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시, 스토리텔링, 지역학, 관광, 창작, 디지털 콘텐츠로 재가공되어야 한다.

4.5 복합특화형 도서관

복합특화형 도서관은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유형이다. 실제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은 주제기반 특화이면서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생태교육을 수행하는 대상기반 특화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향토자료 특화도서관은 지역자원기반 특화이면서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기반 특화도서관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특화도서관은 주제기반 특화이지만, 전시·공연·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창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복합특화형 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이 고도화될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특화가 단순한 장서 구성에서 출발하더라도, 운영이 심화되면 대상별 서비스, 기능별 프로그램, 지역자원 연계, 협력 거버넌스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특화도서관이 진로교육, 미디어 제작, 지역기업 연계,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운영한다면 이는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협력형 특화가 결합된 복합특화형으로 볼 수 있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이 로컬푸드, 지역농업, 요리교육, 창업지원, 지역축제와 연계된다면 주제기반 특화와 지역산업·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복합특화형 도서관의 장점은 지역활성화 효과가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기반 특화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상기반 특화가 특정 이용자 집단의 정보접근권을 높이며, 기능기반 특화가 학습·창작·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기반 특화가 장소성과 지역기억을 확장할 때, 도서관은 단일 서비스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특화도서관이 지역활성화의 실질적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 주제의 독창성보다 운영요소 간 결합과 확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영희 외(2018)가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

라인에서 준비단계, 조성단계, 운영단계, 확산 단계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복합화의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특화도서관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로 출발하기보다, 지역밀착형 주제 선정, 특화환경 조성, 정보복합문화서비스 제공,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복합특화형 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의 최종적 발전형이라기보다, 지역사회 요구와 도서관 운영역량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진화형 운영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유형화를 종합하면, 국내 특화도서관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기반형, 특정 이용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상기반형, 특정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기반형, 지역 고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기반형, 그리고 이들 요소가 결합된 복합특화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를 유형별로 배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4장의 유형화 결과는 5장에서 각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공공적 가치와 기여 가능성을 갖는지 해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4장이 '특화도서관이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는가'를 보여준다면, 5장은 '그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6장은 '그 기능을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어떤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흐름은 데이터-해석-대안의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상호 배타적 분류라기보다 분석적 구분에 가깝다. 실제 운영현장에서는 하나의 도서관이 여러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지역사회 맥락에 따라 특정 유형이 강화되거나 결합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화는 특화도서관을 고정된

범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해석틀로 이해해야 한다.

5.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

4장에서 분석한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는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 복합특화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유형은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협력체계의 결합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4장의 사례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공공적 가치와 지역활성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를 해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개별 도서관의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검증한 인과분석 연구가 아니라, 95개 사례에 나타난 운영요소와 지역연계 특성을 비교하여 지역활성화의 기여 구조와 작동경로를 도출한 질적 사례분석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 제시하는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는 확정적 효과라기보다, 사례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특화운영의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과 해석적 분석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활동의 장을 확장하며, 주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창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지역커뮤니티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복합적 공공 플랫폼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이 교육, 문화, 정보, 포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시설

이라는 IFLA와 UNESCO(2022)의 관점은 특화도서관을 지역활성화의 실천적 인프라로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사회적 만남의 장소이자 공론장으로 분석한 Aabø et al.(2010), 지속가능한 공론장의 인프라로 설명한 Audunson et al.(2019)의 연구는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능이 사회적 관계와 공공적 상호작용의 형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5.1 지역 정체성 강화

특화도서관의 첫 번째 지역활성화 기여는 지역 정체성의 강화이다. 지역 정체성은 특정 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 장소, 인물, 산업, 생활양식, 공동체 기억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집합적 인식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개방된 지식문화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 정체성을 수집·보존·해석·공유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향토자료, 지역 아카이브, 지역문화콘텐츠, 지역인물, 지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기억을 단순히 보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주민의 장소애착을 강화하는 문화적 매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분류·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향토자료가 단순한 보존자료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주민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토자료 특화도서관이나 지역자원기반 특화도

서관은 지역자료실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구술채록, 사진·지도·문서 아카이브, 지역사 강좌, 마을기록 전시,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의 생산과 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제천의병도서관, 포은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마두도서관 등은 지역의 역사·인물·향토자료를 중심으로 특화장서와 지역자료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로,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운영모델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 강화형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주민 경험과 미래의 지역비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소멸, 도시재생, 공동체 약화, 생활권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하는 일은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된다.

5.2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

특화도서관의 두 번째 기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확장이다. 지역 문화생태계란 지역 내 문화기관, 예술가, 주민, 학교, 시민단체, 축제, 창작공간, 생활문화 활동이 상호 연결되어 문화적 생산과 소비,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은 개방성, 접근성, 신뢰성, 지속성을 갖춘 공공문화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생태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음악, 식문화, 생태·환경, 인문학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민의 참여와 창작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 특화도서관은 예술 관련 장서 제공, 전시, 공연, 작가와의 만남, 주민 창작 워크

습, 지역 예술가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문화소비 공간에서 문화생산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가람도서관, 신월음악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복수원도서관 등은 음악·예술·전시·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생태계를 확장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 특화도서관은 음악자료, 감상공간, 공연, 악기 체험, 지역 음악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경험을 다층화할 수 있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은 음식 관련 자료와 지역 식재료, 요리교육, 로컬푸드, 전통음식, 창업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생활문화와 지역경제를 연결할 수 있다.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은 환경교육, 생태관찰, 시민과학, 기후위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 시민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문화교육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생태계 확장 기능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복합적 만남의 장소로 이해하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광장',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 활동의 장소'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하였다. Audunson et al.(2019) 역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특화도서관은 특정 문화주제를 매개로 지역주민, 전문가, 예술가, 기관, 단체가 만나고 협력하는 문화적 접점이 된다.

노영희와 노지윤(2020)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관이 기초생활인프라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교육·복지 기능과 지역 커뮤니티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이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의 실질적 거점

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쇠퇴지역이나 생활문화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도서관은 안정적 공공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활동을 조직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3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

특화도서관의 세 번째 기여는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이다. 현대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주민의 실제 생활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직면하는 생활문제는 디지털 격차, 건강정보 부족, 돌봄 부담, 진로 불안, 고령화, 다문화 적응, 환경위기, 사회적 고립 등으로 다양하다. 특화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특정 주제나 대상 중심 서비스로 구체화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문제해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정보 특화도서관은 정보검색, 디지털 기기 활용,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디지털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탕정은샘도서관 등은 정보 활용, 디지털 접근성, 학습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문제 해결형 운영모델의 근거가 된다. 청소년 특화도서관은 진로탐색, 자기표현, 미디어 제작, 독서토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실버 특화도서관은 노년층의 독서활동, 디지털 교육, 건강정보, 여가문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함

으로써 고령사회에서 도서관의 포용적 역할을 강화한다. 다문화 특화도서관은 언어, 생활정보, 문화교류,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접촉면을 확대한다.

IFLA와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교육·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관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기반 특화도서관은 특정 이용자 집단만을 위한 제한적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공공성의 심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청소년, 노인, 다문화 주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정보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한 특화서비스는 보편서비스만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이용자 요구를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강조한 Klinenberg(2018)의 논의는 특화도서관의 포용적 역할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저비용·고접근성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주민들은 학습, 상담, 휴식, 교류, 참여를 경험한다. 이 점에서 특화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취약한 집단이 공적 공간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5.4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

특화도서관의 네 번째 기여는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기여는 전통적으로 독서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창업,

취업, 소상공인 지원, 지역산업 정보 제공,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역경제 지원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농업·상업·창업 특화도서관, 식문화 특화도서관, 디지털정보 특화도서관은 지역산업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정보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Manjarrez et al.(2007)은 공공도서관이 초기 문해력, 고용서비스, 소기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를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주민의 역량 형성, 정보 접근, 고용 준비, 창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경제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관임을 보여준다. 또한 Hamilton-Pennell(2008)은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 개발 노력과 연계되어 기업가와 소상공인의 정보 요구, 인력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Feldmann(2015)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도서관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도서관과 사서가 창업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Faulkner(2018) 역시 대형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시장정보, 교육자료, 상담·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화도서관이 지역경제 영역에서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창업생태계의 입문 지원기관이자 지역 비즈니스 정보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에서도 농업·상업·창업, 식문화, 디지털정보와 같은 유형은 지역경

제와의 접점이 크다. 농업 특화도서관은 농업 기술, 귀농·귀촌,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농업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업·창업 특화도서관은 소상공인 교육, 창업자료, 시장정보, 온라인 마케팅, 지역브랜드 개발과 연계될 수 있다. 예컨대 농업과학도서관, 고산도서관, 대화도서관, 성내도서관, 통진도서관, 가락물도서관, 인삼고을도서관 등은 지역산업·농업·상업·식문화와 연결되는 사례로,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의 근거가 된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은 지역 음식문화와 로컬푸드, 체험교육, 창업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생활문화와 경제활동을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화도서관은 지역경제를 직접 대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정보역량, 창업역량, 네트워크 형성, 로컬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활성화의 경제적 기반을 보완한다.

5.5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

특화도서관의 다섯 번째 기여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이다. 지역활성화는 물리적 시설 확충이나 경제적 지표 개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신뢰를 형성하며, 공동의 관심사와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관계망이 형성될 때 지역활성화는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공공도서관은 접근성이 높고, 이용자층이 넓으며, 상업적 소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Vårheim(2007)은 공공도서관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도서관이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소임을 논의하였다. Aabø et al.(2010) 역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화도서관이 특정 주제나 대상, 기능을 매개로 주민 간 관계 형성의 밀도를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은 환경동아리, 시민과학 활동, 생태탐방 모임을 형성할 수 있고, 문화예술 특화도서관은 작가·예술가·주민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청소년 특화도서관은 또래 커뮤니티와 지역 멘토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 형성은 특화도서관의 협력 거버넌스와의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컨대 내를긴너서숲으로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청주금빛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등은 특화주제와 지역 기관·주민참여·교육·문화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지역협력 플랫폼형 운영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화도서관은 도서관 단독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문화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주민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은 프로그램 운영의 외부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지식과 자원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노영희 외(2018)는 특화도서관 운영에서 지역콘텐츠, 지역민 요구, 네트워크, 시설, 프로그램,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특화도서관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둘째, 문화예술·생

태·식문화 등 특화주제를 매개로 지역 문화생태계를 확장한다. 셋째, 대상별·기능별 특화서비스를 통해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을 지원한다. 넷째, 창업·산업·디지털정보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보완한다. 다섯째, 주민 간 만남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다. 따라서 특화도서관은 특정 주제를 가진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문화·관계·경제·포용의 기능을 도서관 운영체계 안에서 조직화하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여 구조는 6장의 운영모델 도출을 위한 해석적 중간단계로 기능한다. 즉, 지역 정체성 강화는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로,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은 문화창작·경험형 모델로, 생활문제 해결은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로,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은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로, 사회적 포용은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는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각 모델은 특정 사례 유형에 일대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95개 사례에서 확인된 운영요소와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종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모델이다.

6.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운영모델 도출

6.1 운영모델 도출의 기본 관점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운영모델은 특정

주제나 서비스를 단순히 유형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도출되기 어렵다.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보편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되, 특정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경험, 인력·전문성, 협력·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운영모델은 개별 요소의 목록이 아니라, 이들 요소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자원, 이용자 요구, 정책목표와 결합되는 작용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공도서관의 현대적 역할 변화와도 연결된다. IFLA와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을 교육, 문화, 포용, 정보의 살아 있는 힘으로 규정하면서, 공공도서관이 평화와 복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필수 기관임을 강조한다. 이는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운영모델 도출은 4장의 사례 유형화, 5장의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 6장의 운영모델 제안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분석절차에 기반한다. 먼저 4장에서는 95개 사례를 주제기반,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자원기반, 복합특화형으로 유형화하여 특화도서관이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의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러한 기여 구조를

실제 공공도서관 운영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모델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5장의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은 6장에서 두 개의 모델로 분리하였다. 이는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이 디지털 격차, 건강정보, 환경, 진로, 생활정보 등 문제 중심 서비스 구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은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 주민 등 대상 중심 접근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통합 운영구조는 여섯 가지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상호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경험, 인력·전문성, 협력·거버넌스, 성과관리 요소가 결합되면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첫째, 지역의 기억과 문화자산을 수집·보존·활용하는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 둘째, 지역주민의 문화적 경험과 창작 참여를 확대하는 문화창작·경험형 모델, 셋째, 주민의 생활문제와 정보격차에 대응하는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 넷째, 지역산업·창업·소상공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 다섯째, 생애주기별·대상별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 여섯째,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조직화하는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이다. 이들 모델은 상호배타적 유형이 아니라, 실제 도서관 운영현장에서 중첩·결합될 수 있는 분석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표 3〉은 4장의 사례 유형화 결과와 5장의

〈표 3〉 기여 구조와 운영모델 간 매핑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	도출된 운영모델	핵심 운영요소	기대효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	- 향토자료 수집, 지역사 기록, 구술채록, 사진·지도·문서 아카이브, 지역학 프로그램, 주민참여 기록활동	-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주민의 장소애착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함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	문화창작·경험형 모델	- 문화예술 장서, 전시·공연, 창작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 협력, 주민 발표·전시 기회	- 도서관을 문화소비 공간에서 문화생산·참여 공간으로 확장하고, 지역 문화활동을 활성화함
생활문제 해결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	- 디지털 리터러시, 건강정보, 환경교육, 진로정보, 생활정보, 상담·연계 서비스, 단계형 교육 프로그램	- 주민의 일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서관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함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	- 창업자료, 시장정보, 농업·상업 정보, 로컬푸드, 소상공인 교육, 온라인 마케팅, 창업기관 연계	- 지역산업과 주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소상공인·로컬브랜드 역량을 강화함
사회적 포용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	- 영유아·청소년·노인·다문화 맞춤형 장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특정 이용자 집단의 학습권·문화참여권·정보접근권을 강화함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	- 학교·문화기관·복지기관·행정기관·시민단체·전문가·주민조직 협력, 공동기획, 공동운영, 공동평가	-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함
통합적 지역활성화	복합·통합 운영구조	-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경험, 인력·전문성, 협력·거버넌스, 성과관리의 정렬	- 특화도서관을 단일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를 조직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함

지역활성화 기여 구조를 6장의 운영모델로 연결한 매핑표이다. 이 표는 운영모델이 연구자의 임의적 제안이 아니라,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특화추과 지역활성화 기능을 구조화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는 특화도서관의 운영모델이 연구자의 임의적 제안이 아니라, 사례분석에서 확인된 지역활성화 기능을 구조화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6.2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은 지역의 역사, 인물, 장소, 산업, 생활문화, 구술기록, 사진, 지도, 행정자료, 마을기록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도서관의 장서·콘텐츠·서비스로 전환하는 운영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향토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기억을 수집하고 해석하며 주민과 공유하는 공공 아카이브 기관으로 기능한다.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특화도서관은 지역 정체성 강화, 장소애착 형성, 지역문화 교육, 지역콘텐츠 개발, 도시재생 및 지역브랜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지역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Flinn(2007)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역사회 스스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실천이며, 공식 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의 기억과 경험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형·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활동은 개인과 집단의 소속감, 정체성,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

국내 공공도서관 맥락에서도 이 모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영희와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이 향토문화콘텐츠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향토자료가 단순한 보존자료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체성 형성, 지역문화 교육, 지역콘텐츠 개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은 지역자료실 운영, 구술채록, 마을기록 수집, 지역인물 아카이브, 디지털 지역학 자료 구축, 지역사 강좌, 주민참여형 기록 프로젝트 등을 핵심 서비스로 포함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성공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기록 생산자와 해석자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기록자료가 전시, 교육, 출판, 디지털 콘텐츠, 지역학 프로그램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학교, 문화원, 주민조직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특화도서관은 지역의 과거를 보존하는 기관을 넘어, 현재의 공동체 경험과 미래의 지역비전을 연결하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6.3 문화창작·경험형 모델

문화창작·경험형 모델은 특화도서관을 지역주민의 문화적 경험, 창작, 표현, 전시, 공연,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생산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운영모델이다. 이 모델은 문화예술, 음악, 생태·환경, 식문화, 인문학, 미디어, 메이커 활동 등 주제기반 특화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핵심은 도서관이 단순히 문화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화활

동을 경험하고 생산하며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경험경제론과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Pine과 Gilmore(1998)는 경제적 가치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넘어 기억할 만한 경험의 연출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관점은 공공도서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서관의 문화서비스가 단순 강좌나 행사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몰입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도서관은 지역문화의 체험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만남의 장소 기능 역시 이 모델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이다. Aabø et al.(2010)은 공공도서관이 광장,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 공론장, 공동 활동의 장소 등 여러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하였다. 문화창작·경험형 특화도서관은 이러한 만남의 기능을 특정 문화주제와 결합하여, 주민·예술가·전문가·학교·문화기관이 함께 활동하는 문화적 접점을 형성한다.

이 모델에서 핵심 운영요소는 주제장서, 체험공간, 창작 프로그램, 발표·전시 구조, 지역 예술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이다. 예를 들어 음악 특화도서관은 음악자료, 감상공간, 악기 체험, 공연, 지역 음악인 협업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다.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은 환경자료, 생태관찰, 시민과학, 기후위기 교육, 지역 자연자원 탐방을 연결할 수 있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은 음식 관련 장서, 로컬푸드, 요리교육, 전통 식문화 기록,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다.

문화창작·경험형 모델의 지역활성화 효과

는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에 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창작자·기록자·해석자·발표자가 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예술가, 문화기관, 학교, 시민단체, 축제, 생활문화공동체가 도서관을 매개로 연결되며, 도서관은 지역문화 활동의 지속적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6.4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를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하는 운영모델이다. 여기서 생활문제란 디지털 격차, 건강정보 부족, 진로 불안, 돌봄 부담, 고립, 환경위기, 법률·행정정보 접근성 부족, 미디어 정보 판별의 어려움 등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서 특화도서관은 자료 제공기관을 넘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지식지원기관으로 기능한다.

이 모델은 공공도서관을 지식창출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Lankes(2011)는 새로운 도서관학의 핵심을 자료나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문제 해결형 특화도서관은 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찾고, 학습하고, 전문가·기관과 연결되며,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은 디지털정보 특화, 건강정보 특화, 환경 특화, 진로·직업 특화, 생활법률 정보서비스, 돌봄·복지 연계 서비스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정보 특화도

서관은 기기 활용 교육을 넘어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정보검색, 개인정보 보호, 미디어 리터러시, 생성형 AI 활용 역량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 특화도서관은 진로 정보 제공, 직업탐색, 멘토링, 포트폴리오 작성, 미디어 제작, 지역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문제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 특화도서관은 기후위기, 생태전환, 자원순환, 지역환경 문제를 주민 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의 핵심은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이다. 일회성 강좌만으로는 생활문제 해결 기능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모델은 주제별 정보원 구축, 단계별 교육과정, 상담 또는 연계 서비스, 외부 전문기관 협력, 이용자 피드백 기반 서비스 개선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심효정과 노영희(2022)가 특화도서관 운영에서 전담사서, 특화공간, 일정 수준 이상의 특화장서와 프로그램 확보가 이용자 인지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점은 이 모델의 운영조건을 뒷받침한다.

생활문제 해결형 특화도서관은 지역활성화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의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질수록 정보격차와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주민은 도서관을 단순 이용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축적은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된다.

6.5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은 도서관이 지

역경제, 창업, 소상공인, 농업, 상업, 로컬브랜드, 지역산업 정보와 연결되는 운영모델이다. 이 모델은 도서관을 직접적인 경제개발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산업 주체에게 정보, 학습, 네트워크, 비즈니스 리터러시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지원 인프라로 이해한다.

공공도서관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관한 국외 연구는 이 모델의 근거를 제공한다. Manjarrez et al.(2007)은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 개발의 ‘인간적 차원’에 기여하며, 지식, 기술, 경험,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Hamilton-Pennell(2008) 역시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 개발 노력과 연계되어 지역기업가의 정보 요구와 인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도 도서관의 가능성은 분명하다. Feldmann(2015)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도서관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도서관과 사서가 창업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Faulkner(2018)는 미국 대형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창업자가 도서관을 통해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시장정보, 교육자료, 지원서비스 정보를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지역산업·창업지원형 특화도서관은 농업·상업·창업 특성화 도서관, 식문화 특화도서관, 디지털정보 특화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업 특화도서관은 농업기술, 귀농·귀촌, 농산물 가공, 스마트농업, 로컬푸드, 농업경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창업 특화도서관은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마케팅, 지식재산권, 회계·세무 기초, 창업지원사업 정보, 멘

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식문화 특화 도서관은 지역 식재료, 전통음식, 로컬푸드, 음식문화 교육, 식품 창업, 지역축제와 연계될 수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도서관이 지역경제의 '보조적 정보 인프라'에서 '지역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기관, 대학, 로컬크리에이터,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단순 자료 제공이 아니라 창업교육, 컨설팅 연계, 정보탐색 교육,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등 단계형 서비스 구조가 필요하다.

6.6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은 특정 생애단계나 사회적 조건에 놓인 이용자 집단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 학습권, 문화참여권을 강화하는 운영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 주민,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폐쇄적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공공성을 보다 정교하게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IFLA와 UNESCO(2022)는 공공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정보·교육·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특화도서관은 보편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서비스만으로 충분히 충족되기 어려운 집단별 요구를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심화 전략이다.

이 모델은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대상별 특화 서비스로 구현된다. 영유아 특화도서관은 초기 문해력, 그림책 경험, 부모교육, 놀이 기반 독서 활동,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특화도서관은 진로, 미디어, 독서토론, 창작, 또래 커뮤니티,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실버 특화도서관은 노년층의 독서, 건강 정보, 디지털 활용, 여가문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 특화도서관은 한국어·모국어 자료, 생활정보, 문화교류, 상호이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은 정보격차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linenberg(2018)는 공공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시민의 일상적 접촉과 공동체 회복력 형성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특화도서관은 취약하거나 분절된 이용자 집단이 지역사회와 접속하는 공공적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Audunson et al.(2019)는 공공도서관을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위한 인프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특화도서관이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와 경험을 지역사회 안으로 연결하는 포용적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델의 성공조건은 대상 이해, 접근성, 전문성, 연계성이다. 대상별 요구조사와 이용자 참여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물리적·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서의 대상 이해 역량, 외부 전문가 협력, 복지·교육·문화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특화도서관은 취약집단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6.7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은 특화도서관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조직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협력 기반 운영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정 주제나 대상보다 협력구조 자체를 특화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본다. 특화도서관은 단독기관으로 모든 전문성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문화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대학, 기업, 지역전문가, 주민조직과의 협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

이 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Provan과 Kenis(2008)는 조직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네트워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유형 거버넌스, 주도 조직형 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정조직형 거버넌스 등 다양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특화도서관 운영에서도 협력의 형태와 조정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특화도서관은 단순히 협력기관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목표, 역할분담, 의사결정, 자원 공유, 성과환류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은 모든 특화도서관 유형의 기반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은 기록관, 박물관, 문화원, 주민기록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창작·경험형 모델은 예술가, 문화재단, 학교, 생활문화단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은 보건소, 가족센터, 복지기관, 환경단체, 진로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기관, 대학,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 역시 교육·복지·다문화·노인·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이 모델의 성공조건은 명확한 협력목표, 지속적인 운영조직, 역할분담, 성과공유, 제도화이다. 단발성 업무협약이나 행사 협력만으로는 지역협력 플랫폼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특화도서관은 협의체, 운영위원회, 실무협의, 공동기획, 공동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성과를 도서관의 성과관리 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 이때 도서관은 지역사회 자원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문제와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능동적 플랫폼이 된다.

6.8 통합 운영구조

앞서 제시한 여섯 가지 모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특화도서관 운영에서는 상호 결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향토자료 특화도서관은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모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역문화 전시와 교육을 운영하면 문화창작·경험형 모델과 결합된다. 청소년 진로 특화도서관은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모델이면서 동시에 생활문제 해결형 모델, 지역협력 플랫폼형 모델이 될 수 있다. 식문화 특화도서관은 문화창작·경험형 모델이면서 지역산업·창업지원형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특화도서관의 통합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지역진단을 통해 지역자원, 이용자 수요, 생활문제, 정책환경을 파악한다. 둘째, 특화초점 설정을 통해 주제, 대상, 기능, 지역자원 중 핵심 방향을 정한다. 셋

째, 운영요소 정렬을 통해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협력체계, 성과관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결합한다. 넷째, 지역협력 확대를 통해 도서관 내부 역량의 한계를 지역 사회 네트워크로 보완한다. 다섯째, 성과환류를 통해 특화서비스의 지속성, 이용자 만족, 지역 사회 기여,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재설계한다.

이러한 통합 운영구조는 특화도서관을 '주제가 독특한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특정 공공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도서관'으로 재정의하게 한다. 이를 실제 공공도서관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진단 단계에서는 지역자원, 인구구조, 이용자 수요, 기존 공공서비스, 유관기관 현황을 분석하여 특화주제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특화주제에 따른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인력, 협력기관, 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대표 프로그램과 핵심 서비스를 파일럿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반응과 운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넷째,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정착 단계에서는 전담인력, 안정적 예산, 성과관리 체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특화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특화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특화장서 및 콘텐츠 구축 예산, 지역협력 사업비, 성과평가 지표 개발, 우수사례 확산체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특화도서관의 성공은 특화주제의 희소성보다, 해당 주제가 지역사회 문제와 자원에 얼마나 적합하게 결합되는가, 그리고 그 결합이 장서, 서비스, 공

간, 인력, 협력, 평가체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모델은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설명하는 분석틀이자, 향후 특화도서관 정책과 현장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설계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분석하여 특화도서관이 단순히 특정 주제의 장서나 프로그램을 보유한 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문화, 학습, 참여, 포용, 경제적 역량을 조직화하는 공공 플랫폼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특화도서관은 주제 기반, 대상기반, 기능기반, 지역자원기반, 복합 특화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은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생태계 확장, 생활문제 해결과 사회적 포용, 지역경제 및 창업 지원,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의 지역활성화 운영모델을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 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으로 도출하였다. 이들 모델은 서로 분리된 유형이라기보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호 결합되며 작용한다. 예컨대 향토자료 특화도서관은 지역자원 아카이브형이면서 동시에 문화창작·경험형으로 확장될 수 있고, 청소년 특화도서관은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이면서 생활문제 해결형 및 지역협력 플랫폼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특화도서관의 핵심은 “무엇을 특화했는가”가 아니라 “그 특화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특화도서관 정책과 운영이 단기적 사업이나 홍보성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지역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화주제의 선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특화가 실질적 운영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장서·콘텐츠, 프로그램·서비스, 공간·경험, 인력·전문성, 협력·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자원과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제 선정, 전담인력 확보,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성과환류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특화도서관은 도서관 내부의 서비스 차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문화적 경험과 창작활동을 확장하며,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취약계층을 포용하며, 지역산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화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공동기획자이자 지역콘텐츠의 생산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학교, 문화기관, 복지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여섯 가지 운영모델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사례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도서관의 실제 이용자 경험, 운영자 인식, 지역사회 체감효과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용자 설문조사, 사서 및 운영자 인터뷰, 지역주민 FGI, 이용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특화도서관의 실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특화도서관을 단순한 특화장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견인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재정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특화도서관 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지역자원 아카이브형, 문화창작·경험형, 생활문제 해결형, 지역산업·창업지원형, 사회포용·생애주기 지원형, 지역협력 플랫폼형 운영모델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가 있다. 셋째, 특화도서관 정책이 단기 사업이나 홍보성 차별화가 아니라 지역진단, 운영체계, 협력 거버넌스,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중장기 지역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화도서관의 미래는 ‘남과 다른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특화도서관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읽어내고, 지역의 자원을 발견하며, 주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서관이다. 따라서 특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부가적 선택지가 아니라, 지역활성화를 실현하는 핵심 공공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https://doi.org/10.16981/kliss.45.4.201412.67>
- 노영희, 노지윤 (2020).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89-11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89>
-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노영희, 정대근, 김미연, 이용미 (2018).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19-145.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119>
- 심효정, 노영희 (2022). 특화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47-72.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https://doi.org/10.3743/KOSIM.2008.25.3.159>
- Aabø, S., Audunson, R., & Vå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https://doi.org/10.1016/j.lisr.2009.07.008>
- Audunson, R., Aabø, S., Blomgren, R., Evjen, S., Jochumsen, H., Larsen, H., Rasmussen, C. H., Vårheim, A., Johnston, J., & Koizumi, M. (2019). Public libraries as an infrastructure for a sustainable public sphere: a comprehensiv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75(4), 773-790. <https://doi.org/10.1108/JD-10-2018-0157>
- Bowen, G. A. (2009). Docum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9(2), 27-40. <https://doi.org/10.3316/QRJ0902027>
- Faulkner, A. E. (2018). Entrepreneurship resources in US public libraries: website analysis. *Reference Services Review*, 46(1), 69-90. <https://doi.org/10.1108/RSR-07-2017-0025>
- Feldmann, L. M. (2015).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and libraries: a survey. *Reference Services Review*, 43(3), 369-378. <https://doi.org/10.1108/RSR-06-2014-0016>
- Flinn, A. (2007).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151-176. <https://doi.org/10.1080/00379810701611936>
- Hamilton-Pennell, C. (2008). Public librar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partnering for success. *Rural Research Report*, 18(10), 1-8.

- IFLA & UNESCO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library-manifesto/>
- Klinenberg, E. (2018). *Palaces for the People: How Social Infrastructure Can Help Fight Inequality,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Civic Life*. New York, NY: Crown.
- Krippendorff, K. (2018).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nkes, R. D. (2011). *The Atlas of New Librarianship*. Cambridge, MA: MIT Press.
- Manjarrez, C. A., Cigna, J., & Bajaj, B. (2007). *Making Cities Stronger: Public Library Contribution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Urban Libraries Council.
- Noh, Y.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job seeking college degree candidates and the librarians concerning library specialized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9(1), 81-108.
<https://doi.org/10.5865/IJKCT.2019.9.1.081>
- Noh, Y., Kim, Y.-J., & Kwak, W. (2023). A study on defining communica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3(3), 95-122. <https://doi.org/10.5865/IJKCT.2023.13.3.095>
- Nowell, L. S., Norris, J. M., White, D. E., & Moules, N. J. (2017). Thematic analysis: striving to meet the trustworthiness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6(1), 1-13. <https://doi.org/10.1177/1609406917733847>
- Pine, B. J., II, & Gilmore, J. H. (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6(4), 97-105.
- Provan, K. G. & Kenis, P.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https://doi.org/10.1093/jopart/mum015>
- Ro, J. Y., Noh, Y., & Chang, I. (2025). Evaluating and restructuring library specializ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Pyeongchang County.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5(4), 123-144. <https://doi.org/10.5865/IJKCT.2025.15.4.123>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Vårheim, A. (2007). Social capital and public libraries: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3), 416-428. <https://doi.org/10.1016/j.lisr.2007.04.009>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159-178.
<https://doi.org/10.3743/KOSIM.2008.25.3.159>
- Noh, Younghee & Kang, Jung-Ah (2014).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67-93. <https://doi.org/10.16981/kliss.45.4.201412.67>
- Noh, Younghee & Ro, Ji-Yoon (2020). A study on the role of library i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89-113.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89>
- Noh, Younghee, Jeong, Dae Keun, Kim, Mi-Yeon, & Lee, Yong-Mi (2018). 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specialized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19-145.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119>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s in library spe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41-27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Sim, Hyo Jung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47-72.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부록 1] 분석대상 국내 특화도서관 95개 사례 목록

도서관명	특화주제	도서관명	특화주제	도서관명	특화주제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해양	천호도서관	공동육아	연화정도서관	한국적인 아름다움
공동어린이도서관	자연과학	가산도서관	청소년	오창호수도서관	미술
내를건너서숲으로 도서관	시문학	갈매도서관	환경·청소년	우리소리도서관	국악
동대문구정보화 도서관	한방	동작도서관	진로·취업· 창업	정읍기적의도서관	예술로의 힐링
부산광역시시립부전 도서관	부산의 근현대 산업과 경제	세종시립도서관	청소년	통영시립도서관	작곡가 윤이상
부산광역시시립시민 도서관	일제강점기, 고문헌	송내도서관	청소년 진로	덕계도서관	다문화
서수원도서관	문학	신대방누리도서관	입시	북부도서관	다문화
선경도서관	수원학	월곡꿈그림도서관	청소년	성수도서관	다문화
완산도서관	글쓰기	청주금빛도서관	청소년	영어특성화도서관	영어
인창도서관	천문관측, 박완서	다산성곽도서관	자연친화, 야외독서	영통도서관	세계문화
종로도서관	철학	도봉기적의도서관	생태·환경	의정부정보도서관	다문화
중화문화도서관	문학	무학숲도서관	환경	청천도서관	다문화
창룡도서관	인권·복지	안심도서관	금호강, 생태	문래도서관	문래 디딤돌
청주오송도서관	생명과학	약수골도서관	생태	버드내도서관	건강·복지
화서다산도서관	과학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생태·환경	사북공공도서관	사북지역 역사
꿈샘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영상 미디어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 도서관	생태·환경	장유도서관	치유하는 도서관
대현도서관	웹툰	조례호수도서관	생태환경	증산정보도서관	자녀교육
디지털정보도서관	웹툰	화정도서관	꽃	가재울도서관	시니어
배다리도서관	콘텐츠 창작	환경도서관	환경	마산합포도서관	시니어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마두도서관	향토문화	산본도서관	시니어
탕정온샘도서관	웹툰	부산광역시시립중앙 도서관	부산 향토자료	수정5동실버특화작은 도서관	시니어
고산도서관	농업	성남시수정도서관	마을자료	은빛사랑채작은 도서관	시니어
농업과학도서관	농업	영종도서관	향토자료 아카이브	가락물도서관	식문화
대화도서관	미래산업	제천의병도서관	제천 의병	꿈이랑도서관	어린이 미각
성내도서관	그림책, 취·창업	포은중앙도서관	향토	미감도서관	음식
통진도서관	농업·생태·환경	가람도서관	음악	새롬성당도서관	요리
삼천도서관	창의적인 책 놀이터	광교홍제도서관	디자인	인삼고을도서관	금산·인삼·약 초
서구도서관	그림책	마포평생학습관	미술, 디자인	교하도서관	출판·인쇄
아가탕도서관	임신·출산·육아	복수원도서관	미술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울주천상도서관	미래인재 양성 및 미래교육	신월음악도서관	음악	콩쥐팍쥐도서관	여행·과학
이야기꽃도서관	그림책	쌍문체육도서관	예술	탐라도서관	제주독립출판
주엽어린이도서관	세계그림책	아람누리도서관	예술		

